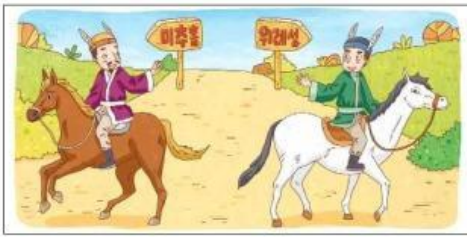
2025학년도 역사 논술형 수행평가 문제지	<문제 QR코드>

1.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단, 숫자가 나올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세요.)

1-1)



동명성왕이 졸본에 정착한 뒤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는데 형은 비류로, 동생은 온조로 이름 지어졌다. 이후 동명성왕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비류와 온조는 왕위에 오르는 가장 유력한 순위에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비류와 온조를 얻기 이전에 동명성왕과 북부여의 예씨 사이에서 태어난 유리가 고구려에 찾아오자 동명성왕이 반겼다. 게다가 동명성왕은 첫째 아들인 유리를 태자로 임명하자, 비류와 온조 형제는 후일이 두려워 남쪽으로 내려가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그런데 비류는 물고기 잡기 좋다 하며 바닷가인 ([1])을 도읍으로 나라를 세웠고 온조는 농사 짓기 좋다하여 소서노와 강가에 나라를 세웠다.
그런데 몇달 후, 비류가 세운 나라의 땅이 짜서 농사가 잘 지어지지 않고 백성들이 굶게되자 비류는 온조에게 귀속되었고 얼마 뒤 죽었다. 이후 온조는 나라 이름을 바꿨는데, 그것이 바로 백제이다.

1-2)

왕비는 임신한 지 7년 만에 큰 알을 낳았다. 왕이 말하기를, "사람이 알을 낳은 것은 불길한 징조다. 마땅히 이를 버려야 한다."라고 했다. 그의 아내가 차마 그러지 못하고, 비단으로 알을 싸서 보물과 함께 궤짝 속에 넣어 바다에 띄워 보냈다. 시조 박혁거세가 재위한 지 39년째 되는 해 이 상자가 해안가에 이르자 해변의 늙은 여인이 밧줄을 이용하여 궤짝을 해안으로 끌어내고 열어 보니,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여인은 이 아이를 데려다 길렀다. 청년이 되자 키가 9척(尺)이고 풍채가 뛰어나며 지식이 보통사람보다 뛰어났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아이의 성(姓)을 알 수 없다. 처음에 궤짝에 떠내려 왔을 때, 한 마리의 ([2])(鵠이(가)) 있었는데, 날아가면서 울었기에 이에 따른다. 마땅히 '鵠'자를 줄여 '昔'을 성씨로 삼아야 한다. 또 궤짝 속에 깊숙이 들어 있는 것을 꺼냈다. 그러니 마땅히 ([3])을(를) 이름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여 이름을 정하였다.

1-3)

천지가 개벽한 이후로 이곳에는 아직 나라 이름이 없었고, 또한 군신(君臣)의 칭호도 없었다. 그리하여 추장들이 백성들을 통솔했으니 모두 1백 호로서 7만 5천 명이었다.
어느날 북쪽 ([4])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백성 2, 3백 명이 여기에 모였는데 사람의 소리 같기는 했지만 그 모습을 숨기고 소리만 내서 말하였다.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추장들이 말하길 "우리들이 있습니다." 또 말하였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구지입니다." 또 말하였다. "내가 이곳에 가서 나라를 새로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여기에 내려왔으니, 너희들은 산봉우리 꼭대기의 흙을 파면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서 뛰게 될 것이다."
이에 사람들은 이 말을 따라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니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 땅에 닿았다. 그 줄의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빛 상자가 있었다. 열어 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 알이 ([5])개가 있었다. 여러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기뻐하며 함께 수없이 절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무리들이 다시 모여서 그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알들이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는데, 용모가 매우 훤칠하였다. 그 중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가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6])라 하였다. 이들은 각기 나라를 세웠는데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가 세운 나라가 ([7])였다.

LIVEWORKSHEETS